

무소속 수성이나 민주당 탈환이나 DJ 고향 빅매치 공천-본선 모두 혈전

■신안군수 입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신안을 빅 이벤트가 예상되는 곳으로 분류한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부인 데도 현직 군수가 무소속이라는 점이 그 증거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겠다는 도전자들의 노림수도 예상되지 않다. 일각에서는 박우량 군수가 민주당 깃발을 달고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군수가 현역 프리미엄에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재선을 위해 견결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성중(신안 2) 전남도의회 의원, 김일중 전 신안복지재단 이사장, 남상창 전 진도 부군수, 박석배 국회 동북아공동체 연구회장, 김관선 전 광주시의원 등이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박 군수는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섬 관광자원화 및 천연염 산업화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점, 타 후보들에 현저히 앞선 인지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재선을 낙관하고 있다.

박 군수는 “앞으로 섬·바다·갯벌을 활용, 신안을 명품 해양생태중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어업과 연계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데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낙후된 섬이 아닌,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안 발전의 기반을 다져온 만큼 유권자들도 이를 평가해 줄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박 군수는 또 “민주당측에서 최근같이 갔으면 좋겠다며 입당을 권유해와 전략공천을 준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놓았다”면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성중 전남도의회 의원도 공무원을 지낸 행정경험과 4년간의 의정 활동 노하우를 살려 군수를 꿈꾸고 있다. 비록 출신으로, 이윤석 의원 계열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37년간 신안군 공무원을 하면서 착실히 바둑 민심을

■신안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강성중(62) 민주당 전남도의원, 고기원(59) 한나라당 전 제3보병사단장, 김관선(52) 민주당 전 광주시의원, 김일중(59) 민주당 전 신안복지재단 이사장, 남상창(59) 민주당 입당예정 전 진도 부군수, 박석배(48) 민주당 국회 동북아공동체 연구회장, 박우량(55) 무소속 신안군수

인지도 높은 박우량 현 군수 입당 가능성도

‘경력 다양’ 중량급 인사들 공천경쟁 돌입

출어온데다, 나름 조직도 갖춰 당내 경선 뿐 아니라 본선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민들과 부대끼면서 누구보다 신안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살맛나는 지역,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신안”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공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일중 전 신안복지재단 이사장은 토박이 농민 대표로 열약한 농어민 소득 증대 및 고령화가 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신안군 농민회 회장과 전국 농민회 총연맹 중앙위원,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 부회장, 신안복지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해온 농업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임을 내세워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종자산업 육성을,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힘쓰는 한편 은퇴자들을 위한 마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내실있는 발전을 꾀할 생각”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지난 총선 때 황호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황 위원장과 지극히 지역위

원회를 꾸려온데다, 6대 전남도의회에서 이윤석 국회의원과 의정생활을 함께 한 인연 등도 공천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남상창 전 진도부군수는 전남도 감사담당관, 복지여성국장, 진도군 부군수 등을 역임한 전문행정가임을 내세우며 참신성을 무기로 민주당 공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수필집과 여행안내서를 통해 신안 홍보대사를 자처해온데다 흑산·임자면장을 지내면서 ‘흑산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발전에 힘을 쏟은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웃섬인 입자 출신으로 10년 넘게 아랫섬 출신이 군수를 독식하면서 벌써부터 은근히 형성되고 있는 ‘아랫섬과 웃섬’간 대결구도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 전 부군수는 오는 21일께 민주당 입당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당원 접촉을 늘려가는 한편, 지방채 등 부채가 1천억원이 넘는 현 군정을 개혁해 ‘빛’ 있는 행정으로 살만한 신안을 만들겠다는 열광 열거기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박석배 국회 동북아공동체 연구회장은 중앙무대에서의 활동 능력을 기반삼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꾸준히 지지기반을 닦고 있다. 최근에는 ‘신안 지역경제 활성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주민들과의 스친심도 강화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졌다.

박 회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총무국 부장을 시작으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지냈고 서종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동북아공동체 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15년동안 중앙인맥을 쌓아온 점을 들어 공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박 회장은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뒤져있는 신안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바꾸는 등 차별화된 중장기적 플랜을 짰 뒤 폭넓은 중앙인맥을 활용,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특화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이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관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DJ의 형남으로 30여년 전에 작고한 고 김대중씨의 3남1녀 가운데 둘째 아들이다. DJ의 조카라는 신분을 활용해 또다시 선거에 열광을 내밀지도 관심거리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제3보병 사단장을 지낸 고기원 무안·신안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쟁점 & 변수

무소속 박우량 군수의 민주당 입당 및 전략공천 여부, 이윤석 국회의원과 황호순 민주당 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의 공천 영향력 행사를 위한 ‘힘 겨루기’, 이윤석 의원과 황호순 위원장 계열로 분류되는 후보들간 치열한 공천 투쟁 등 선거 판세를 좌우할만한 복잡다단한 이슈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주민 성향이 다른 ‘웃섬과 아랫섬’간 대결구도도 은근히 형성되고 있어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인 이윤석 의원이나 황호순 지역위원장 중 누구 입지가 더 크게 작용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도 변수다.

군수로 출마하게 되면 지역위원장을 내놓아야한다는 점에서 황 위원장이나 이 의원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소속인 박우량 군수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박 군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함께 가져가고 요청하고 전략공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의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가 대부분인 탓에 이들은 박 군수의 행보에 안테나를 고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웃섬과 아랫섬’간 대결 구도가 이뤄질 경우 판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물론이다.

10년 넘게 아랫섬(비금·도초·안좌·팔금·장산·하의·신의·흑산) 출신이 군수를 해온 만큼 이제는

① ‘웃섬 vs 아랫섬’ 대결 구도

② 이윤석-황호순 힘겨루기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③ 민주당, 박우량 전략공천할까

이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만큼 반드시 지역 조직을 튼튼히 해야 하는 처지다.

황 위원장도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원외 위원장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위원장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따르는 지지세력마저 등을 돌리게 보일 듯 보인다. 벌써 공천 경쟁에 나선 후보들도 이들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파워게임 승패에 따라 민주당 공천권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떠도는 황호순 위원장의 군수 출마

웃섬(임자·지도·증도·자은·암태·암해) 출신이 군정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가 주민들에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

공교롭게 현역인 박 군수(도초)를 비롯, 전 고길호(도초), 전 최공인(안좌) 군수까지 모두 아랫섬 출신이다.

이 때문에 웃섬후보들은 저마다 연고를 내세우며 19세 이상 인구가만 보더라도 웃섬(1만9천844명)이 아랫섬(1만9천592명)보다 많으니 지역 출신을 밀어야 한다며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도의원 입지자

2개 선거구에 5명의 후보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제 1선거구(지도읍·증도·임자·자은·암태·암해면)의 경우 현역인 임흥빈 전남도의회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문수 신안군의회 의원, 신정식 민주당 직능위원회 상근부위원장 등의 도전하는 형

2개 선거구에 5명 ‘얼굴알리기’ 분주

국이다. 임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4년간의 무난한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재선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경영인 출신으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결해서 지켜본 만큼 농업 예산 확보 등 현장과 밀착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지지세 몰이에 나섰다. 신 부위원장은 “민주당 사무처 조직국장

■신안군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문수(민·52)	신안군의원
	신정식(민·44)	민주당 직능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임흥빈(민·50)	전남도의원
2	김영배(민·48)	민주당 무안·신안 지역위 조직부장
	박충기(민·57)	전 전남도 사무관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 15년동안 활동한 경험과 인맥을 활용, 지역 발전에 쏟아붓겠다”며 얼굴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제 2선거구(비금·도초·흑산·하의·신의·장산·안좌·팔금면)의 경우 현역인 강성중 의원이 군수 선거로 방향을 틀면서 김영배 민주당 무안·신안 지역위원회 조직부장, 박충기 전 전남도 사무관 등이 공천 경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김 부장은 지역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한만큼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자평하고 열약한 재경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남도와와의 가교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박 전 사무관은 신안군 건설과장·도초면장·암해면장·전남도 섬 가꾸기 담당 등 신안군에서만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전남도 정책이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Advertisement for 'Kukrakjeon Namgol-dang'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promoting a 'Namgol-dang' (Namgol-dang) in the Kukrakjeon area. The tex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Advertisement for 'Sang-soo' (山水土風).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promoting a 'Sang-soo' (Sang-soo) in the Kukrakjeon area. The tex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434-0001.